

폴리에스터용 난연가공제 'Express FR'

섬유용 기능성 가공제 제조회사인 Tanatex사는 폴리에스터용 난연가공제인 'Express FR'을 출시하였다. Tanatex사에 의하면 후가공으로 폴리에스터 원단에 난연성을 부여하는 것은 까다롭고,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공정단계를 거쳐 시간소모가 큰 가공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기능성 가공은 염색 이후에 추가적인 가공을 통해 진행되므로 항상 같은 공장 내에서 진행할 수 없으며, 대개 다른 공장으로 이동하여 별도로 가공을 진행한다.

'Express FR' 가공제는 간단히 염색공정 중에 염욕에 추가하여 가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추가적인 가공공정이 필요하지 않아 물, 에너지 및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Tanatex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Express FR'은 기존의 방법보다 더 쉽게 난연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최종 제품의 관리가 용이하다고 한다.

'Express FR'의 주요 성분인 'Flamegard PX'는 폴리에스터 섬유에 흡진되어 난연성이 부여되도록 특별히 고안되었다. 또한 유화/분산제인 'Tanasperse OLG-PX'를 도입하여 'Express FR' 가공제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그림 1> 'Express FR' 홍보 이미지

♠ Fibre2fashion Home page news (2015년 3월 28일)